

朝鮮 儒學과 王陽明

吉星山人

(四)

朝鮮近古의 學風

我東方이 在檀箕之前에 人文이 肇開하였으나 而世大遼遠하고 衛滿右渠以後로 累經兵燹하여 書籍이 蕩然하니 今無所徵信이나 而領其疆土가 既與中國相連이라 故로 自羅濟以來로 其被服文字와 政教學術이 悉依倣中國하고 至麗季에 安文成公 鄭文忠公이 皆觀乎 中國而求其典籍하니 時值元明之際하여 程朱之學이 盛行이라. 故로 經傳之來者는 皆朱子集注일새 而士之 好學者는 悉以程朱爲鵠하니 此是 朱學行於我邦之始也라. 逮夫寒喧一蠹諸公의 倡學함이 亦皆遵其成軌而程朱之學이 漸盛이러니 及退溪先生이 堀起南服하매 篤信程朱하여 言動과 事爲는 必以朱子로 爲準而朝廷之禮遇는 □融하고 四方之專徒는 仝集하니 於是에 道脈이 歸一而全國이 風靡라 先是에 中廟反正而方勵相爲治하실재 有若趙文正公이 以聖學眞工으로 首被發擢而深契 上心하니 於是에 君臣이 相勉하여 期復三代之治러니 中因宵小의 構讐하여 終成己卯之禍하여 士類殘焉하니 實吾東方學術이 消長之一大關捩也라. 退溪懲其然하여 雖恩遇迥摯하고 爵位已高하니 而難進之節은 終始不渝하고 惟固守東岡而傳授及門하여 爲樂育之道라. 既以尊朱子로 爲第一義則 必排擯異乎 朱子之說者라 故로 首斥陸王하여 爲異端하고 苟有能闢之者하면 以許以扶正斥邪之功하매 而收名遊聲之徒가 趨之若□리니 稍後而牛栗二先生이 又踵而絕之 闢之하니 栗谷의 四端七情論이 雖微與退溪說로 有不同이나 亦不貳於朱子요. 而牛溪則尤謹嚴繩尺하니 盖栗谷之資性은 明達하고 而牛溪則主於質實故也라. 然而所以尊程朱而斥陸王은 一也라 其時에 又有金沙溪先生하여 亦尊事朱子하니 在京師則沙溪之門徒가 最盛하여 朝廷의 公卿이 皆出其門하니 宋同春과 宋尤庵과 尹美村이 皆其高第也요. 又有許眉叟와 尹孤山과 尹白湖하여 皆養望山林함으로 而旌招稠疊하고 位列公孤矣라. 利權으로 相猜하여 爭□이 累起하니 如己亥邦禮之訟과

尼懷書牘之□이 愈往愈激하야 竟成國家無窮之禍焉하니라. 當 寧陵卽位之初에 尤庵이 被不世之遇하야 居相府而兼師傅之尊하고 享大權而主名義乏重하니 魚密勿之契와 風雷經倫之盛이 □ 古講學家之所未有也라. 當是時하야 上이 意恨藩籬之恥와 南漢之辱하사 思欲一洗之하시고 士大夫之尙清議者는 尤以明亡而事淸하야 用夏變夷함으로 爲大恥하야 至有長往而不欲立于朝者하고 雖在朝者라도 莫不以名節로 自砥礪하야서 而紀崇禎之年號하며 享大報之崇하야 遂使春秋大義로 昭揭□而嚴斧鉞하니 私院之俎豆로 妥奉皇靈하고 儒林之□□이凌□州郡하야 舉一國而風行影從하니 孰不畏其威而慕其名者哉리오. 況宮府之倚仗이 尤重하고 朝野之相望이 益融하니 則固有以□□而制節之矣니라.